

두 개의 위기와 하나의 솔루션

이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다가올 두 개의 큰 소용돌이

향후 5년은 지난 5년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훨씬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가 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큰 변화가 두 가지이고, 이 중 하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할 변화이다.

첫 번째로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변화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처방도 없이 당하면서 극복해나가야 하는 기후 위기이다.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우리만이 아닌 인류 모두의 위기이다. 극복을 위한 처방도 쉽지 않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국가와 개인이 탄소 중립을 향해 속도를 내어 나간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인류 모두를 한마음 하나의 행동으로 묶어내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인류와 함께 극복해 가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다. 2020년에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의 71%를 넘어섰고, 올해에 73~75% 정도가 될 것이다. 국부(國富)의 총량에서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지금 상태로라면 2025년 안에 90%, 2030년 이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한다. 물론 국부(國富)의 총량이 앞선다고 바로 패권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기회

패권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패권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을 고립시켜 주저앉히겠다는 것이다. 중국 또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을 태세는 아니다. 기술과 군사 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종료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미·중의 패권 경쟁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 한반도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미·중의 대립과 경쟁의 상황을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는 의외의 곳에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남한뿐 아니라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 점차 미·중 양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남한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한의 경우는 세계 10위의 경제력, 최첨단의 기술력, 세계 6위의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선진강국에 접어들어서 미, 중 어느 한쪽도 남한을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우는 미국의 전통적인 적대국이었지만, 적대를 지속해야 할 이유들이 매우 빠르게 감소해 가고 있다. 적대를 지속하거나 확대하여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밀착된다면 중국이 북한을 통해 북태평양과 북극해로 진출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으로서 전혀 달가울 수가 없다.

미·중 관계 변화의 역동성은 북미 관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다시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미 간의 관계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과 다르게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먼저 대화를 하자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 대화 이전에 적대 정책을 확실하게 포기하는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보면 미·중 간의 격돌에 따른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의 변화가 만들어낸 것이다.

솔루션으로서의 남북관계

세 번째로 하나의 솔루션은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후 위기 극복의 길과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동아시아의 강력하고 평화로운 선진문명국가를 이루는 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해방 후 76년, 정전 후 68년의 시간을 분단과 대결로 소비했다. 이제는 대결을 그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만들어 통일의 대로를 닦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도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 정세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빨려가고 있다.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준비한다면 우리에게서 당연한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오래된 민족 분단과 대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테제는 레닌의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테제이다.

기후 위기는 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강원도 홍천에 최고기온 41도가 넘는 더위가 찾아왔고, 2019년에는 인류가 처음 겪는 전염병인 코로나19가 발생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4일간의 최장기간의 장마가 있었다. 올해 역시 최고기온 40도가 넘는 폭서가 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상 기후는 매년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다. 당장은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다른 전염병이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빨려들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동아시아의 강력하고 평화로운 선진문명국가를 이루는 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머지않은 시기에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변 도시들이 잠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존재한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의 위기는 언제 생길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19에서 보여주듯이 위기 상황이 되면 각 나라는 모두 이기적인 자국 중심주의로 빠지게 된다. 범지구적 차원의 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보건과 식량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 단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식량 자급률이 25% 내외인 남한은 특별히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현재 식량 자급률의 질적 차이는 있지만 100%에 가깝다. 국제제재가 역설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주었다.

아무튼 지금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관계의 긴장보다 사람(국가)과 자연 사이에 형성된 긴장을 완화하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단위는 국가 및 민족 단위일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에 대한 민족공동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은 남북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처음 겪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위기이다. 이렇게 긴박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세계는 국가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미묘한 국제정세 아래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평화적인 협력의 욕구를 강렬하게 가지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

지금도 북한은 계속되는 대북 제재하에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제재를 견디면서 미국과의 군사적인 대결에서 평화의 균형을 만들었고, 이제는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최근 상황을 보면, 향후 5~15년 동안 강행 성장전략으로 경제발전을 높은 수준으로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완전 극복하고 지난 5년간 놀라운 변화를 보여왔는데 최소한 향후 5년은 이보다 더 빠른 변화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북한의 발전전략이다. 자원절약, 노동절약, 에너지절약, 자원 재활용은 북한 발전전략의 근간이다. 대북 제재로 부득이했던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가야 할 경제활동의 방향이다. 자원절약, 노동절약, 에너지절약, 자원 재활용은 무조건 아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야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북한의 과학기술은 이러한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발전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고, 경제활동의 방향이 건전성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보듯이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대규모의 자본과 오랜 기술적 축적, 국제적인 분업에 기반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5나노, 3나노급의 반도체 공장 한 두 개만 건설하더라도 어지간한 나라의 1년간 GDP와 맞먹는다. 또 공장을 가동하려면 첨단기술을 가진 5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협업해야 한다. 최첨단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선진국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여러 나라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북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여러 나라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남북협력의 지향점

남북의 협력은 서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방적인 남한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극단적인 고립 속에 자력갱생해 온 놀라운 생존력의 북한 사회 시스템을 잘 조합하면, G2 경쟁체제 아래서 강국을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후 위기 시대를 돌파할 솔루션을 만드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협력은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서 출발하겠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첨단과학 기술에 바탕을 둔 지구 친화적인 신문명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강원연구원



발행번호
No. 21-11

발행일
2021년 7월 26일

통일·북방정책포커스는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본 포커스에서는 통일·북방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일·북방연구센터: ljh527@rig.re.kr/033-250-2985